

대학교육협 창립 25주년
특별기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25주년 기념 좌담회

대학의 경쟁력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07년 3월 6일
- 장 소 :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 사 회
 - 김영식(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참석자
 - 김광조(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손병두(서강대학교 총장)
 - 이경숙(숙명여자대학교 총장)
 - 이인원(한국대학신문사 회장)

사회

올해로써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교협에서 발간하고 있는 『대학교육』지에서 특별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첫째,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대학경쟁력이 어떤 수준에 있으며 그 실상은 어떤가 셋째,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넷째,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다섯째, 대학총장님들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등의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손병두 총장님께서,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두

인재를 육성하는 고등교육의 질과 내용, 특히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국가 간의 무한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화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더 타임즈』의 기사를 보면, 세계 100대 대학 중 우리나라는 서울대 하나만 들어 있고 중국은 베이징대와 칭화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OECD 국가 중 10위라고 하지만 대학경쟁력은 그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가 필요로 하며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즉 글로벌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경쟁력을 갖춰야 국가경쟁력도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지표는 세계 10위권으로 나오는데 대학경쟁력의 순위가 낮은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민 전체가 대학 졸업생이 된다고 할 정도로 양이 팽창하면서 경쟁력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프로그램 없이 막연하게 경쟁력, 경쟁력 하면서 대학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결부시키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부족하다는 지



김광조 차관보



김영배 부회장



김영식 사무총장



손병두 총장



이경숙 총장



이인원 회장



적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시나 준비도 없이 비전, 목표, 로드맵 등이 뒤엎혀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쟁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회

이총장님께서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HRD를 책임지고 있는 김광조 차관보님께서, 그동안 정부 나름대로의 고민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김광조

저는 IMD나 『더 타임즈』 등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에 대한 평가가 나라 안팎에서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난 40년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교육의 힘이 컸다고 누구나 동의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이 성장한 데는 고등교육의 힘이 컸습니다. 물론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지만 이미 성취한 것까지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쟁이 있는 곳이어야 그 정체성이 있는 말입니다. 품질 좋고 값싼 제품을 만드는 것이 일반 시장에서의 경쟁력입니다. 즉 input과 output의 관계입니다. 투입된 시간과 자본에 비해 질 좋고 잘 팔리는 제품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이라면 학생들을 뽑아 잘 가르쳐 좋은 졸업생을 배출해서 사회에서 환영받는 인재를 사회에 공급하는 것

입니다.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을 받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만든다면 그것이 효율성이고 경쟁력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뽑아 사회에 배출하는 것은 경쟁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에 가격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고등학교에 가기도 쉽지 않은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해서 학사, 석사, 때로는 박사학위까지 따서 외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다시 국내에 들어오는 예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외국 대학의 경쟁력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생각이고 이 때문에 조기유학의 열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시장이 다양화된다면 우리나라 대학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사회

김부회장님께서 신중하게 말씀하셨지만, 대학에게 책임과 자율을 주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이인원 회장님께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에 대한 총론적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인원

대학 진학자가 80% 이상인 현실에서, 이제는 대학도 단순한 상아탑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부응하는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렇게 생각할 때 경쟁력 수단의 개발과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지난 번 OECD 발표를 보니 인상적인 세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대학



교육이 경쟁적인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가, 둘째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대학에서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가, 셋째 기업과 대학 간의 지식 이전이 충분히 이뤄지는가 등입니다. 이 세 가지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낙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은,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인을 배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김영식

김차관보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교육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정말 그렇게 낮은 것인가, 그 실상이 어떤가를 이번 기회에 논의했으면 합니다. 국제평가가 우리나라의 현실과 문화의 차이를 정확하게 담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경숙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경숙

저는 대학경쟁력을 진단할 때, 외국에서 개발한 지표가 세계 공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 참고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나 생산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진국 대학들을 보면 투자비용이 엄청납니다. 하버드대만 해도 자산이 26조 원입니다. 우리는 적립금만 조금 갖고 있어도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걱려는 못할망정 그것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여론이 있습니다. 투자대비 성과를 얘기 하면 우리나라 대학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만 하더라도 선진국의 사립대학은 우리보다 등록금이 월등히 많습니다. 따라서 시설이나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가 우리보다 나올 수밖에 없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결과만 놓고서 세계 몇 등 안에도 못 든다고 구박하며 마치 불량품을 제조하는 기관인 것처럼 매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으로 느끼고 대학이 질 책임, 기업이 질 책임, 국가와 국민이 질 책임이 무엇인가를 터놓고 얘기해야지 대학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투자를 제대로 못했으니 세계적인 지표로 보면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한 것에 비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숙명여대는 정보화 디지털 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며, 외국의 유명 대학에서도 벤치마킹해 갑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이 출발하면 우리 대학들도 충분히 외국 대학을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아까 김영배 부회장님 말씀대로 여건이 너무 힘듭니다. 정부에서 대학에게 한번 자율적, 창의적으로 해보라고 하면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자신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총장님들이 많습니다.

사회

이총장님 말씀을 간추리면, 국제적 평가가 하나의 잣대가 될 수는 있지만 결과만 놓고 보도 하니까 실제 대학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대학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순위만 갖고서 못한다고 질책만 하는 것은 문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손총장님께서 과거에는 대학에서 가르친 인재를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실제 대학에 와보니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대학경쟁력과 연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두

그것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방금 이총장님



께서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대변하신 듯 합니다. 최근 제가 어느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흔히 대학의 고객이 누구냐고 물으면 학생이라고 대답하는데, 왜 학생이 고객이나, 학생은 고객이 아니라 제품이다, 사회나 기업, 정부가 고객이다, 대학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곳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대학은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 인재를 길러 기업에 공급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졸업생들이 외국인을 만나면 피해 다니고, 직접 협상도 하지 못하며, 한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실사구시적인 커리큘럼을 대학에서 개발해서 그같은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물론 대학의 여건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학 자체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학도 계속해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도 기업도 만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요자인 기업과 더욱 대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사회

두 분 총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경숙 총장님께서 국제평가 기준이 주로 결과만 놓고 따지는 것인데, 투자비용과 성과를 따져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대학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경쟁력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손총장님께서, 대학이 인재를 길러낼 때 기업이 요구하는 만족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석됩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대학교육에 대한 CEO의 만족도가 6점 만점에 3.72점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입장에서 김영배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배

이총장님 말씀대로, 대학의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대학 측에 이런저런 인재를 요구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사립대학의 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입니다. 주립대학은 18% 정도로 주재정에서 거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공공재를 만들어 내는 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은 평등주의에 매몰되어 국화빵 찍듯이 졸업생을 배출하기 때문에 산업계와 매치가 잘 안됩니다. 대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신입사원을 외국에 보내려면 월급 주면서 6개월 정도 연수원에 넣어 외국인과 교육을 시키고 나서야 조금 대화가 됩니다. 전공만 하더라도, 현장에 투입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가르치는 데 대략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투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중투자를 하다 보니 기업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학을 비난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대학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교적 잘 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학교육이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 기업에 들어온 신입사원을 쓸 만한 인재로 길러내는 데 필요한 재교육 기간이 평균 25개월, 비용이 1년에 1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대학과 기업의 중간자 입장에서 이인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인원

어느 통계를 보니 2004년 재교육 비용이 4조 8,500억 원, 1인당 평균 재교육 비용이 6,218만 원, 재교육 기간이 20.3개월이라고 나와요. 아까 손총장님 말씀 가운데 학생이 제품이라는 말씀,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방식이고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냐면, 학생들이 수요자가 되서 대학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지 대학이 학생들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쟁력이라고 말할 때 그 경쟁력이 세계로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학을 선호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1등이니 2등이니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더 타임즈』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가 63위, 고려대가 150위, 카이스트가 198위, 『뉴스위크』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 2개 대학, 일본은 5개 대학이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 우선 가장 큰 장벽이 언어문제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영어를 쓰고 일본도 대학영어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초가 다져지지 않아 세계적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생을 제품이라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느 학생은, 국내 대학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국내 유수의 연구소에 스카우트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회

대학경쟁력에 관한 국제평가의 실상에 대해서는 김차관보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줄 압니다.

김광조

사건입니다만, 고등교육평가에 대한 국제비교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IMD 평가 결과를 대한민국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조사 내용 중 정성지표는, 손총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고객 집단인 기업의 CEO들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불만이 좀 있으신 듯 합니다. 예컨대 핀란드 기업이 핀란드 대학을 평가하는 것하고 우리 기업이 우리 대학을 평가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여져 나라별로 비교가 되는 것인데, 이 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더 타임즈』에서 발표하는 대학별 순위를 보면 아무래도 자기 나라의 대학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리 잘 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해교통대학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몇 명인가, 외국인 교수가 몇 명인가 이런 걸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학평가에 대한 국제비교는 참고는 하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평가보다는 어떻게 실질을 높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중에는 수능 5~6등급의 학생들을 받아서 잘 가르쳐 미국 아이비리그 수준의 대학으로 유학 보내고, 거꾸로 그 학생들을 국내의 다국적기업에 취업시키는 대학도 있습니다. 지방의 어떤 대학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기업이 그 학생들을 입도선매식으로 데려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국제평가가 우리 대학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국내 대학 중 상위에 있는 20~30개 대학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반도체, 철강, 조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외국에서 교육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폄하하지 말고 잘한 것은 키워가고 못하는 것은 끌어올리면 좋겠습니다. OECD의 통계를 보면 평균 대학진학률이 40%지만 우리는 80%이고, OECD 평균 교육예산이 GDP 대비 1%인데 우리는 0.4~0.5%입니다. 즉 우리는 절반의 예산으로 배나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셈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대학의 수준을 너무 낮춰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병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CEO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같은 잣대로 비교해서 나온 결과라면,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조

물론 그 평가를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라, 실상을 좀 알고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국제적 평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손병두

결국 그것은 교육 품질의 문제입니다. 왜 어떤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아이비리구에 들어가는데 다른 대학은 그렇지 못습니까. 서강대에서도 역점을 두는 것이 교육 품질입니다. 그동안 교수들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고 외국에서 공부한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배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 졸업해서 다시 시간과 돈을 들여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 품질의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이인원

우리나라 자동차가 예전에는 세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품이 좋아지니 평가도 좋게 받습니다. 품질이 좋은데 일부러 나쁘게 평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

지금부터는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단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들 외에 총장 직접선거 제도를 포함해서 이경숙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경숙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입니다. 그 교육열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그런데 권유는 못할지언정 가끔 보면 그것을 발산하는 것이 마치 최악인 양 규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교육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재정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대학들이 거기에 맞춰 교과과정과 인력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학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학에 들어서 어학을 시작하면 너무 늦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제대로 어학 시스템이 갖춰지고 유능한 인재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과연 그런 교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대학과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인재를 양성해 달라면 잘 해낼 수 있는 대학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신입사원 재교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서 좋고, 대학은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니까 좋고, 서로 Win-



Win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안은 나오지만 실천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천 단계로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이 인성과 업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한 마디로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은 대학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저희 숙명여대는 교육부로부터 리더십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리더로 키우려면 그것을 가르칠 만한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교수들을 재교육시키는 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6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운용하니 교수들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교수와 직원, 학생들의 의식도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만약 우리 대학이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받지 못했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학들이 특성화되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 대학들도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성과 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에 부탁드릴 말씀은, 모든 대학들을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보다도 약 30% 정도의 사립대학은 완전히 자율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실하게 잘하고 있는 대학에게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권을 쥐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면서 경쟁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3~4%로 미미한데, 이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대학이 의욕적으로 잘 해보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대학을 비판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하향평준화 시켜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국민은 또 그제 맞는 줄 알고, 그러면서 요구는 많고 구박만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우리나라 대학이 경쟁력도 없고 수준도 낮으니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대학에 대해 기대를 갖고 격려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으면 합니다.

손병두

이총장님께서 총론부터 각론까지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는 평준화정책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8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3이 되기까지는 대부분 명문대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씁니다. 다른 나라의 대학진학률이 40%면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추고 질을 높이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서독이 1970년대 중반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평준화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1960년대까지는 노벨상 수상자의 43%가 독일에서 나왔는데 그 후에는 손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타임즈』의 발표에도 독일 대학은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준화정책의 문제이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평준화정책을 바꿔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정부가 평준화정책, 3불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저런 규제로 묶어놓고 못한다고 야단치지 말고, 정부가 털 것은 다 털고 대학이 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학이 못한다면 그때 야단치십시오.

이인원

대학을 혁신한다는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구각(舊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떨쳐 버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준화를 없애고 특성화, 자율화 방향으로 가야 하고 학생선발권도 대학에 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지배구조도 달라져야 합니다. 총장, 학장에게 권한이 주어져야 해요. 지금 우리 대학사회는 과잉 민주화가 되어 있고, 이것이 평준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래서야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손병두

저는 총장직선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협에서는 뭐라 할지 모르지만, 선거를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총장 초빙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유능한 총장을 모셔오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로 뽑힌 총장은, 자기를 밀어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과감한 정책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김영배

저희들이 밖에서 보면요, 과연 기업이 대학에 의존해야 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 대학교수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은 외국의 유명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을 기업이 뽑아서 연구소에 데려옵니다. 1970년대에는 대학교수 연봉이 기업 부장 연봉의 3배였지만 지금은 일류대 정교수 연봉하고 부장 연봉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부장이 더 많습니다. 교수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니 유능한 인재가 대학으로 가려 하지 않고, 앞서가는 기업들은 대학에 의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경숙

사립대학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까지 이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크고, 교수를 많이 채용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데 그러자면 그만큼 재정이 궁핍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업이 대학을 불신하는 요인이 되어 기업 스스로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키우는 인재는 대학 자체에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한번은 크게 이뤄져야 합니다.

김영배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이 먼저 해줘야 대학이 잘된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 부분은 기업이 내는 세금을 갖고 정부가 해줘야 합니다. 그런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바탕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되고, 기여입학제를 포함한 모든 학생선발권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사회

제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인재 양성,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대학과 기업 간의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인식의 차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여기에는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이나 조치도 필요할 줄입니다. 그런 사례로 평준화 정책이나 3불정책, 대학자율화 등의 문제에 대해 김차관보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광조

우선 평준화란 학생의 거주지 중심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도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불정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면 부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어떤 부분은 폐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한꺼번에 칼로 자르듯이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불정책을 포함한 규제



부분은 이달 중 자율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거버넌스 구조는, 사립대학의 경우 스스로 선택해야 될 문제지만,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선택적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는 총장이 더욱 많은 권한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학사 운영이나 재정 운영에서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갑갑합니다. 최근에 저희도 재정지원을 늘리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상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고등교육에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합의는 확실히 이뤄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추가 재원을 찾아내고 정부가 쓸 돈을 여러 부문에 나눌 때 고등교육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 외에 세제나 공공요금 같은 부분을 개선해서 간접적으로 대학의 비용구조를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대학에 계신 분들은 또다른 규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학과 정부 사이의 완충기구로서 고등교육평가원이 객관적, 독립적이고 국제기준에 맞는 평가를 해서 학생이나 기업이 대학의 실상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중계 역할, 말하자면 일종의 '거간' 역할을 많이 하려 합니다. 기업에서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대학에서 어떤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산학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개별 대학의 우수한 특성화 사례를 널리 알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원

총장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교육계에는 아카데미컬 캐피털리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대학의 자원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학들이 특성화되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경쟁 아닙니까. 이런 경쟁이 더 치열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들이 자기의 특성화 분야를 제대로 찾아서 정부로부터 재원을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면 대학 자체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소위 일류대학 따라잡기식으로만 쳐다보고, 저 대학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대학이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점은, 교육에서 관료주의적인 체제를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대학을 많이 다녀보고 총장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런 주문을 하십니다.

사회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란 책을 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에 보면 대학은 시속 10마일로 걸어가고,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뛰어간다, 100마일로 뛰어가는 기업에 10마일로 걸어가는 대학이 졸업생을 취업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배짱이나, 그런 뉘앙스의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대학에 주문하기를, 우리는 100마일로 뛰어가는데 너희는 왜 안 변하나 할 수 있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열심히 뛰어가고 싶은데 발목잡는 일은 안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배

대학이 자기 색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쓸 흙이나 비료, 일조량을 스스로 선택



할 수 있어야 다양한 색깔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국화꽃을 심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장미를 찾는 구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사결정권을 대학에게 주고, 기여입학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큰 발전이 없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광조

우리나라 대학이 너무 대외적인 평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마음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대학이나 정부가 서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폄하하기 보다는, 대학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계 유수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유학오고 싶은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가 대학을 위해 거들려고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국제화입니다. 국제화는 여러 가지 척도로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원

이미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고 대학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부탁하고 싶은 점은, 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출제도를 개선하고 장벽을 깨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교수평가와 교수 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체적으로 경쟁을 해야 대학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또 대학의 행정 시스템도 현대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교협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각 대학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해주셔야지 서울

대를 평가하는 잣대로 지방의 대학을 평가하면 곤란합니다. 그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잣대로 해서, 일률적으로 1등, 2등, 3등 하지 말고, 이런 특성화 분야에서는 어느 대학이 우수하고 저런 특성화 분야에서는 어느 대학이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경숙

대학도 이제는 옛날에 생각하셨던 그런 대학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류 대학이 되어 살아남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10년 전부터 매학기 교수평가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총장이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학의 질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 부탁드릴 점은, 기업에서 대학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 100%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들의 기부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연계해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이인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교협의 대학평가도 대학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학과 기업, 정부의 여러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나눠 주셨습니다. 이번 좌담회가 모두 함께 대학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교육